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35> 생멸 없는 데서 생사와 열반 보는 것은

중생이 부처님의 마음을 열반이라 생각 하고 중생의 마음을 생사라고 말하는 것은 중생 처지에서 맞는 소리다. 따라서 생사 속에 있는 중생이 부처님의 열반에 들어가 기 위해 자기수준에 맞추어서 단계적으로 공부하는 일은 당연하다. 중생의 이런 처지를 부처님은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 <선가귀감> 35장에서는 말한다.

衆生 於無生中 妄見生死涅槃 如見空花 起滅

중생이 생멸이 없는 데서 헛되이 생사와 열반을 보는 것은 마치 허공의 꽃이 생겨났다 없어지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

무생(無生)은 무생멸(無生滅)이니 시비분별로써 생멸하는 중생의 마음이 없는 곳을 말한다.

언제나 변함없이 여여하여 텅 빈 중만으로서 시비와 분별이 사라진 부처님 세상이요 깨달음이다. 생사(生死)는 윤회라는 뜻을 갖고 있다. 중생은 자기중심적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법 때문에 지옥 아귀 축생의 고통으로 끊임없이 바뀌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 그러나 알고 보면 중생의 생사는 바깥 경계에 집착하여 시비 분별하는 마음일 뿐이다. 시비 분별할 인연이 흠여지니 사리질 법에 집착할 마음이 없게 되니 이것이 열반이다.

중생이 보는 생사와 열반은 차원이 다르지만, 부처님의 지혜로 보면 생사가 열반이고 열반이 생사이다. 중생이 부처이고 부처가 중생이다. 중생계로 벌어지는 생사로서 온갖 연기법이 알고 보면 실제 없는 텅 빈 성품에서 나왔고, 이 텅 빈 성품에 많은 인연이 주어진다면 온갖 법이 드러날 뿐이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 그 근본에

서서 모든 법이 공(空)이니 색즉시공(色卽是空)이고, 공(空) 자체에서 주어진 인연으로 온갖 모습이 다양하게 드러나니 공즉시색(空卽是色)이다.

법의 진실을 알고 색(色)에도 걸리지 않고 공(空)에도 걸리지 않는 이 자유자재한 부처의 지혜를 중도(中道)라고 한다. 중도는 밝은 거울과 같아서 일체 분별이 없다. 어떤 인연이 오면 그냥 그 모습을 드러내나 그 인연이 사라지면 그 모습도 사라진다. 따라서 중도에서 볼 때는 일방적인 생사나

시비 분별할 인연 흠여지면 '열반'

부처님, '집착' 바로잡기 위해 온 것

열반은 허공의 꽃처럼 존재하지 않는다. 허공의 꽃을 보는 것은 눈병이 낫을 때니, 존재하지 않는 생사와 열반을 본다는 것은 중생이란 병이 있을 때다. 시비 분별이란 병이 다 떨어진 부처님의 지혜에서는 생사나 열반이란 분별이 없다. 이것이 중도다.

이 사상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표현한 것이 <중론>의 삼제개(三諦偈)이다. 공(空)·가(假)·중(中) 세 글자로 인도 불교의 중도 사상을 잘 표현했음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성립된 삼론종은 물론 천태종과 화엄종의 성립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친 내용이다. 여기서 말하는 공(空)은 열반이고, 가(假)는 인연이 모여 임시방편으로 있게 되는 생사이며, 중도는 생사와 열반을 뛰어넘어 있는 '참성품'을 말한다.

衆因緣生法 我說卽是空 亦爲是假名 亦是中道義
온갖 인연으로 생기는 법을, 나는 공(空)

이라 말하고 또한 가명(假名)이라고도 하며 중도의 뜻이라고도 하느니라.

'온갖 인연으로 생기는 법'이란 인연이 모여 생겨나는 모든 연기법을 말한다. 이 연기법의 실체를 찾아보면 많은 인연이 모여 생겨났을 뿐, 본디 성품이 없으므로 '공'이다. 아주 아무 것도 없으나 하연 그렇지 않다. 분명히 어떤 인연이 모여 일어나는 법이 있다. 이 법은 모인 인연이 흠여지면 곧 사라질 법이므로 '임시로 거지 존재'한다는 의미로써 '가(假)'라는 표현을 쓴다. 인연이 모여 어떤 법으로 나타나면서도 공이고 공이면서 인연이 모여 어떤 법으로 드러나는 것은, 공도 아니고 가도 아니면서 동시에 공이고 가가 되니, 이것이 중도이다. 곧 공이 가이면서 중이고, 가가 공이면서 중이며, 중이 공이면서 가가 된다. 따라서 모든 연기법의 내용은 공, 가, 중으로써 서로 내포되어 분리되지 않을으니 즉공(卽空) 즉가(卽假) 즉중(卽中)이 된다. 여기서 즉(卽)은 공과 가와 중이 한 곳에 함께 있다는 뜻으로 보면 된다. 이것이 유명한 삼제원융(三諦圓融) 사상이다. 서산 스님은 말한다.

性本無生故 無生涅槃 空本無花故 無起滅也 見涅槃者 如見空花滅也 然起本無起滅 本無滅 於此二見 不用辯詰 是故 思念經云 諸佛出世 非爲度衆生 只爲度生死涅槃二見耳

참성품에는 본디 생멸이 없기 때문에 생사와 열반이 없고, 허공에는 본디 꽃이 없기 때문에 꽃이 생겨나거나 없어질 것이 없다. 생사를 본다는 것은 허공에 꽃이 생긴 것을 보는 것과 같고, 열반을 보는 것은 마치 허공에 꽃이 없어진 것을 보는 것과 같다. 참성품에는 생겨나도 본디 생겨나는 것이 없고 없어져도 본디 없어지는 것이 없다. 생사와 열반 이 두 가지 견해에서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 따지지 따질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위경>에서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중생 제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사와 열반 두 가지 견해에 집착하는 것을 바로잡아 주었음을 뿐이다'고 말한다.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cafe.buddhapia.com/community/wonsun



명부전(冥府殿)

절에 가면 전각이 참으로 많습니다. 극락전, 지장전, 대웅전, 약사전 등 어떤 부처님과 보살님을 모시느냐에 따라 전각의 이름이 결정됩니다. '이 생에서 나쁜 짓을 하면, 죽어서 명부전에 불려서 벌을 받는다'라는 말을 들어본적이 있으세요? 명부전은 저승의 명부를 상징하는 불전입니다. 심판관인 시왕

(十王)을 모시고 있다해 시왕전이라고 하죠. 혹은 지장보살을 주불로 모시고 있어 지장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시왕상 앞에는 시봉을 드는 동자상 10구를 세웁니다. 또 판관 2구, 장군 2구 등 모두 29구의 존상(尊像)을 갖추지요. 이렇게 되면 상당히 폭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느'자 모양으로 꾸며 들여옵니다.

명부전은 이처럼 망자의 심판관인 시왕과 망자를 자비로 인도하는 지장보살을 모신 전각인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매일 대인관계에서 지지고 볶으면서 일상을 허겁지겁 사는 재가불자들에게는 경쾌를 주는 청량한 죽비와 같은 존재로 다가옵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110)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56장 소승 사과(四果), 그리고 혜능 대승의 사과

9장, 소승 사과에 대한 혜능의 통찰을 들기로 한다. 지면 관계상, <금강경> 경문은 현토만 내걸고, 해석은 생략했다.

1. 수다원, 성신원 흐름에 들어선 자

“須菩提，於意云何。須陀洹이 能作是念。我得須陀洹果不。須菩提 1 言하사대, “不也。世尊。何以故。須陀洹은 名爲入流。而無所入。入色聲香味觸法。是名須陀洹이 아니다.”
-六祖: 須陀洹者梵語, 唐言逆流, 逆生死流, 不染六塵, 一向無漏業, 得?重煩惱不生, 決定不受地獄畜生餓羅異類之身, 名須陀洹果. 若了無相法即無得果之心, 微有得果之心, 即不名須陀洹, (故言不也).
-번역: “중국어로는 역류(逆流)라 번역하는 수다원은, 생사의 흐름을 거슬러, 육진(六塵)에 물들지 않는다는 뜻이다. 세가나 넘치지 않는 업을 오르지 않아 나가면, 거친 번뇌를 졸업하고, 마침내 지옥, 축생, 아수라, 아귀 등 저급한 윤회의 몸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되는데, 이를 수다원의 성취라 부른다. (그렇더라도, 빠지거나 의식하지 마라) 무상법(無相法)을 깨친 자, 그는 '결과를 성취했다'는 자만심이 없다. 만일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는 수다

원으로 불릴 자격이 없다.”

2. 사다함, 단 한번만 오가는 자

“須菩提，於意云何。斯陀含이 能作是念。我得斯陀含果不。須菩提 1 言하사대, “不也。世尊。何以故。斯陀含은 名一往來。而無往來。是名斯陀含이 아니다.”
-六祖: 斯陀含者梵語, 唐言一往來, 捨三界結縛, 三界結盡, 故名斯陀含. 斯陀含一名一往來, 而無所入. 入色聲香味觸法, 是名斯陀含이 아니다.
-번역: “사다함은 중국어로 일왕래(一往來)라 번역하는데, 삼계의 결박을 벗어난 자를 가리킨다. 그는 '한 번 더 왔다 간다.' 그는 천상에서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인간세를 다하면 다시 천상에 태어나는 과정을 거쳐, 마침내 생사를 졸업하는 사람이다. 사다함의 경지에서 삼계의 업은 그만 다 소멸된다. (이것은 소승이 말하는 사다함이고) 대승의 사다함은 또 좀 다르다. 눈이 사물을 볼 때, 마음은 동했다가 사라진다. 한번 동했다 사라지되, 더 이상 2차적 동함은 없는

것. 그것을 일러 대승의 '한번 오고 감'이라 부른다. 여기서의 삼번 하나가 망명되어 일어나더라도 다음 생각이 문득 그치고, 정병 하나가 집착에 빠지더라도 다음 생각이 그 열기를 문득 떠난다. 여기 더 이상 오간 것이 없다. 이것이 사다함이다.”

3. 아나함, 이제 더 이상 오지 않게 된 자

“須菩提，於意云何。阿那含이 能作是念。我得阿那含果不。須菩提 1 言하사대, “不也。世尊。何以故。阿

那含은 名爲不來。而實無不來。是故名阿那含이 아니다.”

-六祖: 阿那含梵語, 唐言不還, 亦名出欲. 出欲者, 外不見可欲之境, 內無欲心可得定, 不向欲界受生, 故名不來, 而實無不來, 亦名不還. 以欲習永盡, 決定不來受生, 是故名阿那含也.

-번역: “아나함은 중국어로 불환(不還), 혹은 출욕(出欲)이라 번역한다. '욕망을 벗어났다(出欲)'는 것은, 밖으로는 세상을 보고도 욕망을 내지 않게 되었으며, 안으로는 마음의 안정을 에게 회귀하지 않게 되었다는 뜻이다. 그는 더 이상 욕계(欲界)에서 수태하지 않게 되었기에, '더 이상 여기 오지 않는(不來)'라고 한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다시 오지 않는 자'가 어디 존재하는 경지에 올랐노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자(不還)'라고도 하는데, 이는 욕망과 습기(習氣)가 영원히 제거된, 그리하여 다시는 이 욕계의 삶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뜻이다.”

4. 아라한, 자신과 다투지 않게 된 자

“須菩提，於意云何。阿羅漢이 能作是念。我得阿羅漢道不。須菩提 1 言하사대, “不也。世尊。何以故。實無有法名阿羅漢이, 世尊。若阿羅漢이 作是念。我得阿羅漢道라하면, 卽爲着我人衆生壽者이다.
-六祖: 諸漏已盡, 無復煩惱, 名阿羅漢. 阿羅漢者, 煩惱永盡, 與物無諍, 若有得果之心, 卽是有諍. 若有諍, 非阿羅漢.
-번역: “넘치고 새는 자리'가 없기에,

空, 內外常寂, 是名阿羅漢. 若有得果之心, 卽同凡夫, (故言不也).
-번역: “아라한은 중국어로 무쟁(無諍), 즉 '다툼이 없는 자'라 번역한다. 무슨 말인가. 더 이상 끌어아할 번뇌도 없고, 떠나고 버려야 할 탐욕과 분노도 없고, 사물에 대해 동등 비어있는 이렇게 안과 밖이 두루 고요 평안한 사람을 아라한이라 한다. 이때 그가 만일 '이제, 나 아라한을 성취했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는 범부(凡夫)나 다름 바 없다.”

滅去來, 唯有本覺常照, 故云無諍三昧. 三昧는梵語, 唐言正受, 亦云正見. 遠離九十五種邪見, 是名正見也. 然空中有明暗性, 性中有邪正諍, 念念常正, 無一念邪心, 卽是無諍三昧. 脩此三昧, 人中最爲第一. 若有一念得果之心, 卽不名無諍三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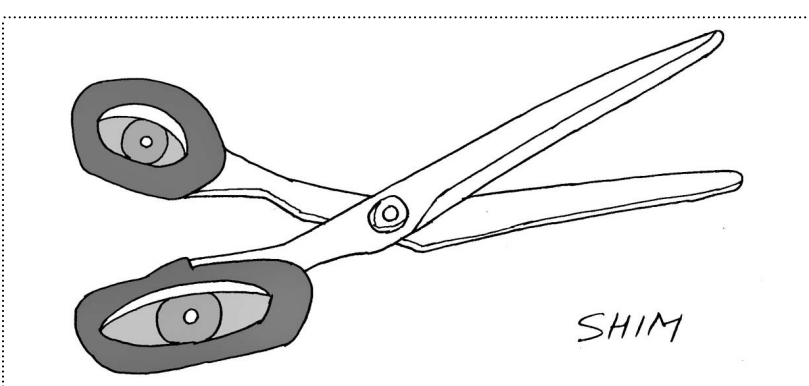
-번역: “무쟁삼매(無諍三昧)란 무엇인가. 아라한의 마음에 아무런 생멸(生滅)도 거러(去來)도 없는 것, 오직 본래의 각성(體覺)이 언제나 안팎을 비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더 이상의 갈등이 없는 고요와 평정'이라고 부른다. 인도어 삼매(samadhi)는 중국어로 정수(正受), 혹은 정견(正見)으로 번역한다. 저 95종의 사된 견해를 훌쩍 떠난 것이 정견이다. 그러나 같은 허공에도 어둠과 밝음이 서로 다투고, 같은 불성(性)임에도 사되고 바른 것이 서로 다툰다. 생각생각, 삼념과 정념들이 늘 바른 자리에 있어 일념도 사심이 끼지 못하게 하는 것, 이를 무쟁삼매라고 한다. 이 삼매를 닦는 것이 사랍의 일 중 가장 위대하다. 다시 유의해야 하는데, 이 위대한 작업을 하는 자, 만일 '나 아라한의 열매를 얻어내겠다'는 마음이 흠 있다면, 그는 무쟁삼매의 자격을 잃는다.”

-六祖: 阿蘭那是梵語, 唐言無諍行. 無諍行卽是清淨行. 清淨行者, 爲除去有得心也. 若存有所得心, 卽是有諍. 有諍卽非清淨道. 常行無所得心, 卽是無諍行.

-번역: “아라나는 중국어로 무쟁의 실천(無諍行)이라 번역된다. 그것은, 곧 청정행(淸淨行)으로서, '무엇을 얻겠다'는 마음을 제거한 순수행동이다. 성취에 대한 열려가 있는 한, 그는 내적 갈등을 면할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는 결코 청정한 삶의 길로 나아가지 못한다. 늘 '얻을 것이 없다'는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것을 아라나, 즉 무쟁행이라고 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cafe.buddhapia.com/community/plan_14

생각은 다시 오지 않는다



더 이상의 번뇌가 없는 자, 그를 아라한이라고 한다. 그는 번뇌를 영원히 끊고, 이제 어떤 사람과도, 그리고 자신과도 갈등하지 않게 된 사람이다. 여기, 그러나 '나 아라한의 경지에 올랐노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다시 (자신과의) 갈등 속으로 떨어진다. 갈등이 있다면, 그는 아라한이 아니다.”
-六祖: 阿羅漢梵語, 唐言無諍. 無諍者, 無煩惱可斷, 無貪瞋可離, 情無違順, 心境俱

5. 이라나, 깨끗한 삶을 위한 길
-世尊。不說我得無諍三昧人中爲最爲第一。是第一離欲阿羅漢이라하시니, 我不作是念。我得離欲阿羅漢이라하시니. 世尊。我若作是念。我得阿羅漢道라하면, 世尊이 卽不說須菩提 1 是樂阿蘭那行者라하시리라. 須菩提 1 實無所行일세, 而名須菩提 1 是樂阿蘭那行이라하시니. 六祖: 何名無諍三昧. 謂阿羅漢心無生